


2015년
2월호를
발행하며

2015년에는 본지의 편집 방향을 ‘한국 교회에 들어온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살펴본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학적 빈곤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손봉호 대표주장께서 한국 신학의 빈곤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반지식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한국교회에서 신학자들의 위상이 낮아지고, 큰 교회 목사와 교단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식인들의 위치가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지식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학과 지식을 무시하고 감정의 흥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화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 교수께서는 한국 교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목사직에 대한 신학의 빈곤을 지적하면서 만인제 사장론과 교회 지체론으로 볼 때 목회자뿐 아니라 크리스천 모두가 제사장인 성직자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은 교회가 세상의 지도 체제를 모방하면서 세속화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문자적 의미는 ‘양을 치는 목자’란 뜻이며, 목회자의 임무는 목회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작은 목자들로 성숙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호의 기획기사로는 송인규 교수의 “신학적 빈곤의 파악과 한국적 신학의 시도”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학적 빈곤이 무엇이며 오늘날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한국적 신학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서강대 철학과 강영안 교수님의 “교회 안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려고 했으나, 대신 방한한 르네 반바우든베르흐(René van Woudenberg) 교수와 강영안 교수의 대담으로 꾸몄습니다. 르네(René) 교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며 ‘아브라함 카이퍼 센터’ 소장입니다. 대담의 주제는 과학주의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는 것을 모두 이른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즉 ‘과학주의’(scientism)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과학주의가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에 얼마나 팽배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현대인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인간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이퍼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 지성인들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양희송 청어람 대표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에 대한 조성돈 실천신학 교수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100만 명에 이르는 이 시대에 과연 이들은 ‘잃은 양’인가, ‘깨어있는 성도’인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교회론이 없고 단지 교회성장론만 있다고 하면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됨을 상실한 한국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하며, ‘반신앙적 도발’이 아니라 ‘참신앙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조성돈 교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 대한 여러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